

11.2024 (이전세/이화평)



어느덧 11 월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.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. 24 년도 시작이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네요! 이제는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.

뒷쪽은 최악의 상태에다 요즘 러시아에 사람들을 보내어 힘들게 하고 있는 소식이 들어 오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. 계속하여 힘든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어도 계속하여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. 사장님 건강은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는데 그건 폐섬유화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좋다는 것을 다 해 보아도 안 되네요. 그래도 폐섬유화증은 계속 붙들고 계셔서 잘 견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. 저의 왼쪽다리는 이제는

어느정도 힘이 들어가 지고 있어서 그냥 걸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정말 감사하지요.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여 열심히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, 몇 명 남지 않은 원아들도 계속하여 열심히 공부들을 하며 또한 제과 제빵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만들어서 매주 한번씩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계속하여 도와주고 있지요.

정말 기특하고 감사하지요. 위쪽의 소식은 안 좋고 힘든 상황속에서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. 계속하여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공동체 식구들도 모두 열심히 계속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곳 저곳들을 방문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. ㅈ 동산도 계속하여 열심히 잘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분들 속에서 저희들은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멀리서 뽀릴리 뽀릴리 소리를 울립니다.